

한국어 중·고급 수준에서의 한자교육 필요성과 교육 방법 연구

방정식
카자흐 국제관계및 세계언어대

Title: *Chinese Character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s Research in Advanced Korean Learners*

Author: *Bang Jungsig, KazUIR&WL., Almaty, Kazakhstan*

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about Chinese character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s research in advanced Korean. In fact, Korean languages consist of Chinese character and foreign words. For the reason, advanced Korean learners have to learn Chinese character in Korean languages. If advanced Korean learners do not learn Chinese character in Korean language, they cannot understand Korean language perfectly. Also, they cannot write Korean language correctly. Therefore, Chinese character education needs to study to every Korean learners as well as advanced Korean learners. However, teaching of Chinese character is not easy to Korean learners. First of all, qualified Korean teachers in Chinese character need. And they have to decide th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After that, Korean teachers can teach Chinese characters to advanced Korean learner. In addition, this article describes about teaching methods of Chinese character.*

Keywords: *Korean, native language, Chinese character, foreign words, Chinese character culture, Chinese character idioms, Korean proverb, advanced Korean learner, teaching methods research, common Chinese character*

주제어: 한국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한자어, 한자성어, 속담, 고급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교육방법연구, 공통 한자어

들어가는 말

한국어에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미 실생활과 학문적으로 굳어진 한자어를 무시하고서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어의 하나인 한자어를 배우면서 한자를 모르면 고급 어휘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자성어와 관용어 속담 등은 한자어가 많아 한자를 배우고 익힌다면 한국어 학습자가 폭넓은 어휘이해와 뜻에 대한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러므로 본 글에서는 먼저 한국어를 배우는 중·고급수준에서의 학습자에게 한자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자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그들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지를 각종 문헌과 간행물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고급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와 한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한국어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한국어 어휘의 구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단어 50 만여 개를 분류하여 통계를 내 보니까 한자어가 5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고유어 25.9%였으며 기타(혼합형태) 10.9% 마지막으로 외래어가 4.7%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어휘 100%중 거의 60%가 한자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중·고급수준으로 올라가면서 한자어의 근원이 되는 원래 한자를 학습해야 다양한 표현의 중고급 수준의 어휘를 쉽고 용이하게 익힐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같은 한자어 문화권에 있는 중국과 일본학습자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한국어를 익히고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되는 것이다.

[표 1] '표준국어대사전(1999)' 수록 어휘의 어종별 통계

어종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기타 (혼합형태)	합계
표제어	111,299	251,478	23,196	54,289	440,262
부표제어	20,672	46,438	165	1,234	68,509
합계	131,971	297,916	23,361	55,523	508,771
배분율	25.9%	58.5%	4.7%	10.9%	100%

따라서 한자어 문화권이 아닌 다른 나라의 한국어 학습자들도 반드시 한자어의 근원이 되는 한자를 알아야 중고급 수준의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자어란 무엇인가?

한자어는 한자가 근본이 되어서 형성된 한국어 단어를 말한다. 이 말의 뜻은 단어의 근원과 형성은 중국어의 문자인 한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한국땅에서 오랜 세월 사용되어 흐르면서 그 단어의 사용주체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말한다. 한자어는 기본적으로 한문 문장에서 시작되었지만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든 한문을 일상생활에서의 주요 표현수단과 학문을 익히기 위한 지식으로 활용하여 사용했다. 따라서 한자어에는 중국에서 전래되어진 것과 일본에서 전래되어진 것, 그리고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 등 모두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면, ‘한국어 어휘교육론’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 교육과 구분관 교수는 한자 문화권의 나라에서 생성된 한자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가) 중국에서 기원한 한자어: 학문(學問), 공부(工夫), 천하(天下)
- 나) 일본에서 기원한 한자어: 엽서(葉書), 추월(追越), 시말서(始末書)
- 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한자어: 약방(藥房), 양말(洋襪), 편지(便紙), 고생(苦生), 복덕방(福德房), 식구(食口), 행차(行次)

또한 일본에서 기원한 한자어 중 ‘사진(寫眞), 회사(會社), 기차(汽車)와 같은 말은 완전히 한국어로 정착이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한국어에는 중국, 일본에서 기원되어 오늘날 한국어의 표준어로 확정된 어휘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이유로 위키 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에서 표제어를 ‘한자어’로 입력하면 한국 한자어에 대한 해설과 함께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한자어가 매우 상세하게 비교하여 설명되어 있을 정도이다.

구분관 교수는 그의 소논문 ‘한국어 어휘교육론’에서 한국 한자어의 특징을 8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단어 형성에 제약이 없어서 비교적 활발하게 만들어진다.
- 2) 한자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있고 품사가 고정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 3) 고유어로 표현하기에 길고 복잡한 통사적인 구성을 해야 할 개념이 한자어로는 간단히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애연가(愛煙家), 등산(登山) 등
- 4) 고유어가 다의어인 경우 한자를 사용해서 보다 세분화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학술어나 전문 용어등에 한자를 즐겨 썼다.
- 5) 약자나 약어를 만드는 것이 수월하다. 예) 전국경제인연합회: 全經聯. 고유어인 경우 이러한 특성이 약하다.
- 6) 고유어와 한국에 들어온 외국어와도 잘 결합하여 새 단어를 잘 만들 수 있다. 예) 된醬, 밥床, 工夫하다, 헛手苦, 代代로, 洋담배, 新유립 등. 단어 중에는 한국어에 토착화되어 거의 한자어임을 인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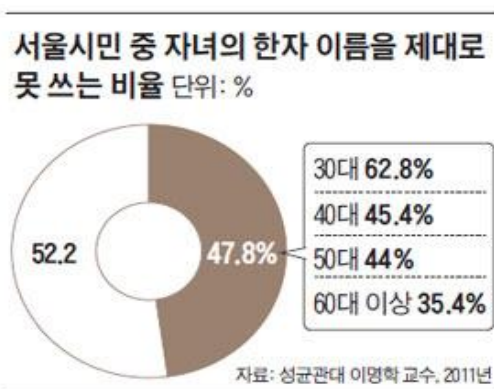
지 못하는 단어도 많다. 예) 심지어(甚至於), 어차피(於此彼), 안녕(安寧) 등.

- 7) 한국어와 한자가 결합하여 동의 중복에 의한 새 단어를 만들기도 한다. 예) 담粧, 모래 沙場, 洋屋집, 속內衣 등
- 8) 한자어에는 ‘愛國, ‘出國’ 등과 같이 중국식 어순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한자어가 한국식으로 동화된 것도 있는 한편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중국어적인 특성을 지닌 단어도 있어서 한국어 안에서 한자어의 위치는 특이한 점이 있다.

3. 한국어에 있어서 한자교육의 필요성

오랫동안 한국내에서도 한자교육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1970년 부터 한글 전용화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배우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 시민의 절반이 자신의 자녀이름을 한자로 못쓴다는 통계가 나왔다.

[표 2] ‘서울시민 중 자녀의 이름 제대로 못쓰는비율’ 성균관대 이명학 교수, 2011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찬성하는 학부모가 89.1%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왔다. 또한 기초적인 한자를 몰라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미가 통하지 않는 불통 현상이 일어나고 지식의 확장에도 제한이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성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2014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에게 한자어는 외국어가 아닌 우리말임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2019년부터는 5·6학년 교과서에 한자 400~500자를 한글과 함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교과서 집필기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고급 수준의 외국인 학생들도 한자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한국내 일간신문에서는 중요한 제목이나 사설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할 때는 한글 병용이 아닌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 자기 이름을 중요한 문서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자를 모르면 한국생활에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014년 1월 1일자 조선일보 ‘한자에 캄캄한 대한민국’이라는 칼럼에서 진태하 인제대 석좌교수는 “한자가 많이 쓰인 1980년대 이전 책들을 현재의 대학생들이 전혀 읽지 못한다는 것은 전국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90%이상이 그대로 사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말의 의미는 한국어 중·고급 수준의 외국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유학온 학생들이 전문적인 한국어 서적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논문이나 레포트를 쓸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 동안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학습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치중되어 있었고 모든 한국어 자료도 한자를 배제한 채 편집되어 출판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자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1970년대 이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어교사들조차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자를 가르칠 만한 한자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먼저 한국어 교사들 스스로 한자를 배우고 익혀서 중·고급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자교육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학습자가 익혀야 할 한자어

첫째, 한국에서는 2018년 초등학교 3·4학년부터 한자 400~500자 수준의 한글 병기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아직 정확한 한자의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자시험 6급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자 시험은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400~500자 정도의 한자를 익혀야 하는 수준이라면 한자시험 6급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자검정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7개 정도 되는데 기관마다 합격에 따른 한자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급수별 익혀야 할 한자수

급수	익혀야 할 한자수
1 급	2,933
2 급	2,678
3 급	1,800
4 급	937
5 급	637
6 급	475
7 급	319
8 급	164
9 급	55

둘째, 현재 한국의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는 단계는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다. 매년 300 자씩 배우기 시작해서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900 자를 배우고 고등학교 3년 동안 900 자를 더 배움으로써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총 1,800 자의 한자를 배운다. 이때 학생들은 각종 한자성어를 배우게 되는데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자성어를 배우는 셈이다. 또한 한자로 된 문장과 중국의 간단한 고시를 익힘으로써 한자를 익히게 된다.

셋째, 지난 2013년 7월 경 한·중·일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한·중·일 30인회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 800자를 발표하였고 그 이후 808자로 수정하여 다시 발표하였다. 이것은 한자 문화권인 한·중·일이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자만 익히면 언어가 아닌 문자로는 뜻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학문적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도 중국어와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의 발음은 많이 다르지만 공통 한자어 800자를 익힌 후 한·중·일을 방문해 본다면 그 나라에서 각종 지명과 간단한 길거리 표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방문한 나라의 말을 한 마디도 하지 못해도 공통 한자 800자를 사용하여 간단한 필담을 주고 받을 수 있다. 현재 한·중·일 공통한자 808자는 인터넷(www.naver.com)에서 간단히 찾을 수 있다.

한국인에게도 한자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수준까지 배워야 할지 뚜렷한 학습적 목표도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1,800자 정도의 한자만 정확히 알아도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글을 쓸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한자 실력을 요구할 것인지는 각자의 한국어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어떤 학문을 연구할 것인지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다. 한자검정시험에서

의 한자를 기준으로 급수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든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한자 교과서를 정해서 중학교 1학년 수준부터 시작하든지, 마지막으로 한·중·일 학자들이 발표한 공통한자 808 자만 공부할 것인지 등 한국어 교사와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과 목표에 따라 정하면 될 것이다.

5. 한자교육 방법

한자는 한국어와 달리 뜻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마다 일정한 모양(형形)과 소리(음 音)와 뜻(의 義)의 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도 있고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글자도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자는 세로획과 가로획이 있고 삐침과 파임, 그리고 점과 치킴, 갈고리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왼쪽부터 쓰며, 위에서 아래로 쓰고, 바깥선에서 안쪽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양쪽이 같을 때는 가운데부터 쓴다. 또한 모든 한자에는 부수와 획수가 있는데 부수란 여러 글자들에 공통되는 글자의 한 부분을 말한다. 부수는 한글의 자음이나 모음, 영어의 알파벳과 같은 것으로 자전또는 옥편(한자사전)에서 글자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한자의 뜻이나 소리를 추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획수는 한자를 쓸 때 사용하는 총 사용획수를 말한다. 따라서 처음 한자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자의 획수를 먼저 배움으로써 글자의 모양을 잘 유지해야 한다.

한자는 반복 연습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인내를 갖고 반복 연습하다 보면 한자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한자를 배울 때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나 한자성어 중에서 선택하여 배우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어에 있어서 한자어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한자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연상해서 함께 공부함으로써 이미 알고 있는 어휘를 반복해서 기억해낼 수 있다. 또한 한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한자를 필서할 때 천천히 정확하게 순서대로 써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자를 배우는 학생들은 생소한 글자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몇 번이고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필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적당한 과제물을 통해서 한자를 쓰고 읽는 연습을 함으로써 쉽게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한자를 가르치는 교사의 책임이다.

맺음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 후 잘 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급 어휘사용과 때에 맞는 한자성어 그리고 관용어와 속담을 적절하게 사

용할 때가 아닌가 싶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자를 배우고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한자성어와 속담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실 한국인에게도 한자어뿐만 아니라 한자는 한국생활속에 깊이 들어와서 자리잡고 있어서 한자를 모르면 신문을 읽거나 길가의 간판을 읽을 때 종종 당황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스콤을 통해서 접하는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자성어와 속담 그리고 관용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 교사들이 먼저 자신감을 갖고 한자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가르칠 것인가를 정한 다음 기초 수준에서부터 한자를 가르친다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좀 더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한국어 교사들은 외국인에게 한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한국어 교사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쉽고 일상적인 한자어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은 흥미를 갖고 학습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어 학습자들 스스로 한자를 배우면서 새로운 글자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어를 통해 어휘의 폭넓은 확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배운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문을 연구할 때 폭넓은 문헌연구를 통해 깊이있는 논문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구본관, “한국어 어휘교육론”,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 서울: 아카넷, 2012.
2. 송영일, <이야기 한문과 한자성어>,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8.
3. 김상홍외 5 인, <중학교 한문>, 서울: (주)지학사, 2012.
4.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192252
5.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sanhaljw6901&folder=3&list_id=13186805
6.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31/2013123103809.html